



권 오 승 위원  
서울 제6중재부  
전 SBS 해설위원

# 활기찬 겨울입니다

“주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국민배우 안성기씨”는 정답이 아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란다, 정답은 “KBS 전국노래자랑 사회자 송해씨”다. 연세가 80대 중반인데도 돈을 벌고, 전국을 돌며 질 좋고 맛있는 특산물을 선물로 받아 집에다 한아름씩 가져다주니 주부들이 선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세태를 반영하는 아린 현실,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요즘 대졸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막상 취업을 해도 40대에 이미 실직에 몸을 떨어야 한다. 천운으로 정년퇴직을 해도 55~57세면 거리로 나와야 한다.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집에서 소일하기에는 너무 젊다. 하루 세 번 밥을 차려야 하는 주부는 짜증이 난다. 송해씨 가족이 부러울 뿐이다.

노년은 해가 지고 어둑할 때를 뜻하는 황혼기라 한다. 십여 년 전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대통령 출마의 변으로 ‘황혼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셰익스피어는 노년을 겨울에 비유했다. 그는 “뜻대로 하세요”라는 작품에서 등장인물 애담을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 “비록 늙어 보이지만 건강하고 원기 왕성합니다. 젊은 시절 거칠고 드센 술을 내 몸에 들이부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약과 무기력의 길을 뻘뻘스럽게 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나이는 활기찬 겨울로서 서리가 내렸지만 온화합니다.” (노년의 역사, 팻 테인 엮음, 글항아리 출판)

그러나 활기찬 겨울을 보내기에는 냉랭한 현실의 추위가 너무 매섭다. 고회를 넘긴 정진홍 전 서울대 교수는 “노인을 위한다는 이런저런 제도가

늙은이를 교묘하게 소외시켜 공동체 삶의 자리에 덜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징표로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일흔의 자의식은 극에 달합니다.” 라고 꼬집었다. (노년의 인생에 길을 묻다, 궁리 출판)

통계청 자료(2009년)를 보면 55~79세 인구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58%, 이 가운데 남성은 72%에 이른다. 네 명 중 세 명이다. 구직자들은 자신의 원숙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싶지만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기능수준이 낮은 직종이다. 그나마도 노동대체성이 커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 고용촉진법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어서 실효성도 적다.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령자들은 취미생활이나 자원봉사로 활기찬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충북 제천시에 사는 심상호라는 분은 환갑 전후의 나이에 중국 실크로드 수만리의 길을 당나귀를 끌고 도전했다. 일본 NHK의 실크로드라는 다큐멘터리에 열광해 평생 꿈꾸었던 일이다. 피 많은 당나귀가 말썽을 부려 도중에 혈값에 팔아버렸지만 걸어서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다고 수기에 적고 있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진홍 교수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등의 연령대는 단절이 아닌 매듭으로, 노년의 대비는 젊을수록 빠를수록 좋다고 충고한다.

2천년 전 고대 로마의 극작가 세네카는 이런 경구를 남겼다. “노년에는 스스로 싸우고, 권리를 지키며, 누구든 의지하려 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스스로를 통제하려 할 때만 존중받을 것이다.” 🍌